

광주일보 유제관 부국장 을 네번째 '이달의 편집상'



유제관(사진) 광주일보 편집부국장이 올해 네 번째 '이달의 편집상'을 받았다.

한국편집기자협회(회장 김선호)는 유 부국장의 '극일, 경제 독립-OK 대한민국' 대한민국

NO 아베(2019년 8월15일 1면)가 제216회 '이달의 편집상'에서 종합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달의 편집상'은 전국 일간신문 51개사 회원 1000여 명의 투표를 통해 종합, 경제·사회, 문화·스포츠, 피쳐 등 4개 부문 각 1개 지면이 수상작으로 선정된다.

'극일, 경제 독립'은 광복 74주년을 맞아 광복군 70명의 원원이 담긴 '광복군 서명 태극기'를 중심으로 태극문양과 일장기를 활용하여 일본의 경제 보복 현안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경제·사회부문에는 '중·금리정상' 낮춰다-獨 '재정장벽' 허문다(최주홍 아주경제 기자) ▲문화·스포츠부문 '잘 듣는 약'(김동주 부산일보 기자) ▲피쳐부문 '재개발, 꼭 이렇게 해야 하나요'(김소영 한국일보 기자)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대한류마티스학회, 담양서 1박 2일 힐링캠프



대한류마티스학회(이사장 박성환)는 최근 1박 2일간 담양에서 강직성척추염 환우와 함께하는 '2019 힐링캠프'를 성황리에 마쳤다. <대한류마티스학회 제공>

한전KPS, 나주 한아름초에 통학길 안전카드 전달



한전KPS(사장 김법년)는 최근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한아름초등학교에서 1학년생에게 통학길 안전을 위해 가방에 붙이는 '엘로카드' 6500장을 만들어 전달했다. <한전KPS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33 FAX 062-222-4938, 222-4918

화속

- ▲박재홍(영무건설 회장)-안정란씨 장남 장배군, 박희경-구영란씨의 장녀 혜영양=27일(금) 광주시 광산구 드메르웨딩홀 4층 라비엔홀 062-222-0000.
- ▲박태웅(해남농업기술센터)군, 강자람(강진대중교육행정사)양=28일(토) 오전 11시30분 해남읍 해남읍 해리197 카펠리아 웨딩홀 1층 베아트리스홀 010-5631-9110.
- ▲박왕규(곡성축협조합장)-김정오씨 아들 중한규-공광규-서영숙씨 장녀 희영양=10월9일(수)오후1시 서울 아벨모도 반도, 피로연 25일(수)오전11시-오후3시 곡성축협마트2층.

일림

▲광주지하철예술무대 공연=30일(월)그리나눔공연예술단 오후2시,남광주역, 10월1일(화) 은마노래자랑 오후2시30

- 분 상무역, 2일(수) 성역하모니예술단 오후2시 농성역, 4일(금) 사랑보따리 오후2시 남광주역.
- ▲청소년전화062-1388=광주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할 경우 062-1366.
-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용센터, 노인학대 신고=연계는 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추진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업관공공무로지원, 장례지도사무로지원 062-369-4009.
- ▲슬관성도박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 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한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

- 527-3400, 3403.
-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상담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061-285-1161.
- ▲화순 효사랑 노인복지센터 무료 방문 =중풍이나 치매 등의 병으로 고통받는 화순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061-373-8865.

모집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 드로조종분야 교육과정 훈련생 모집 =만 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드로조종 국가자격증 취득 교육기간 6개월,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061-320-7024.
- ▲사회환경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본부 062-515-7521.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가출, 학대 등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

- 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
- 부음**
- ▲박도수씨 별세, 영복-영구-중근-영근-영남-영애-영자씨 부친상, 기공순-김명순-김미정-최경희씨 시부상, 신종철-김영석-고호석씨 빙부상=발인 24일(화) 오전 7시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
- ▲김기호(전 광주교과 교사)씨 별세, 근익(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수연씨 부친상, 임중식(KT IP운용센터 차장)씨 빙부상=발인 24일(화) 오전 9시 광주 천지장례식장 특실 301호 062-527-1000.

화정4동 자율방범대 특별한 대원들...엘림장애인생활시설 권구경·이경수·박응희·김귀현 씨

“어두운 골목 구석구석 이웃사랑 불 밝힙니다”

매주 월요일 밤 9~11시 활동
보안등 관리·위험요소 제거 등
만취한 주민 음주운전 막기도
“봉사 할 수 있는 삶 행복”



화정4동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광주시 서구 화정4동 일대를 순찰하고 있다. 권구경(왼쪽 네번째부터) 박응희, 이경수씨. <광주시 서구 제공>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광주시 서구 화정4동 자율방범대(대장 심해경)에 장애의 벽을 깨고 마을을 화사하게 밝히는 청년들이 있어 화제다.

지난 6월 화정4동 자율방범대에는 반가운 일이 생겼다.

늦은 밤 진행되는 순찰활동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자원하는 청년 회원이 없던 화정4동 자율방범대에 광주시 서구 엘림장애인생활시설에서 지내는 20대 청년 4명이 신규 회원으로 가입한 것.

바로 지적장애를 가진 권구경(22)·이경수(20)·박응희(22)·김귀현(33)씨 등 4명이다. 이들은 매주 월요일이면 직장에서 퇴근한 뒤 밤 9시 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방범 활동을 펼치고 있다.

권구경씨는 “우리 지역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함께 생활하는 지인들

과 자원해 방범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각각 김치공장과 냉장고 등 가전 부품 조립공장에서 퇴근한 뒤 활동하고 있지만 힘들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활동 구역은 화정4동 일대로, 주민센터 인근 방범초소부터 백일지구 청소년 수련원 등이 관할지역이다. 권씨 등은 비장애인 대원들과 동행해 고장난 보안등과 CCTV를 점검한다. 발길 범죄 예방이나 사고 위험요소 제거를 비롯해 환경정화활동도 수행하고 있다.

심해경 자율방범대장은 “장애인 청년들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활동에 방범대원 모두 감동 받았다”며 “이들은 평범한 이웃이자 청년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두 달 전 장애인 청년들과 방범 순찰 중에 겪은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심 자율방범대장은 “한 테니스장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려던 한 중년 남성을 청년들이 발견했다”며 “이들이 곧바로 달려가 중

년 남성에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고, 중년남성은 이들에 말을 선선히 따른 덕분에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막내 이경수씨는 “함께 활동하는 형들을 엘림장애인생활시설에서 만났고 친형제나 다름 없다”며 “형들과 꾸준히 봉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 창립한 화정4동 자율방범대는 대원 20명으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10여개 진로 체험 기회 ‘호남대랄랄라스쿨’

영광여중 등 8개교 320명 대상 프로그램 운영

호남대랄랄라스쿨은 '2019 찾아가는 자유학기(년)제 오감진로체험프로그램'을 최근 영광여자중학교를 시작으로 영산, 영광, 흥농중학교 등 영광지역 중학교 8개교를 대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의 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나 대학 학과 및 현장 연계 체험형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이번 행사는 1차로 영광여

중 재학생 130여 명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네일아티스트, 레이저사격, 마술 등 총 10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2019년 농촌·도시지역 방과후학교의 위탁 사업에 선정된 호남대랄랄라스쿨은 방과후학교 운영과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 진로직업체험, 대학학과 연계 교육기부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기회를 제공해 청소년들의 창의적 체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채희중 기자 chae@



‘호텔왕’ 배런 힐튼 ‘아름다운 뒷모습’

세계 2800개 체인 그룹 운영...91세로 별세 유산 97% 기부

전 세계 2800여개 호텔을 거느린 유명 호텔 체인 힐튼 그룹을 이끈 미국의 ‘호텔왕’ 배런 힐튼이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자택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1세.

힐튼 그룹의 창업자인 콘래드 N. 힐튼의 아들로 1927년 미국 델러스에서 태어난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해군 사진작가로 활동하다가 주스 음료 사업과 석유 사업, 항공기 임대업으로 재산을 모았다. 이후 1951년에 아버지가 운영하던 사업을 물려받아 30년간 회장직을 역임하며 힐튼 그룹을 크게 확장했다. 세계적 부호인 힐튼은 지난 2007년 “아버지



의 뒤를 따르겠다”며 공언 대로 유산의 97%를 콘래드 M. 힐튼 자선재단에 넘기기로 했다. 창업자인 부친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자선재단은 가톨릭 수녀회나 재난 구호와 복구, 청년 육성, 에이즈 감염 아동 치료 등에 성금을 기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3%의 유산은 유족들이 상속받을 예정이다. 힐튼의 유족으로는 8명의 자녀와 15명의 손주, 4명의 증손이 있다. /연합뉴스

을묘왜변 양달사 장군 의병활동 조명

내일 영암 군민회관 학술세미나

‘을묘왜변과 의병장 양달사의 영암성 수성 활동’ 학술 세미나가 25일 오후 12시40분 영암군민회관에서 열린다.

영암군이 주최하고 사)호남의병연구소(소장 노기욱·사진)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을묘왜변 당시 치열한 전투를 벌여 왜군을 섬멸한 영암군민과 양달사 장군의 의병활동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의 의거 덕분에 남서해안 대부분 지역이 왜군의 수중에 들어갔음에도 영암이 전란의 화를 면했다.

모두 3개 주제로 진행되는 세미나에서 광주 교욱대 김택진 교수는 ‘을묘왜변과 영암’, 정



현장 전남대인문대학원 강사는 ‘을묘왜변과 영암군 선사’, 노기욱 소장은 ‘을묘왜변과 의병장 양달사의 영암읍성 수성’ 논문을 발표한다. 노소장이 좌장을 맡는 토론에서는 김용철 전동경대학교 김용철 연구원 등이 의견을 교환한다.

노기욱 소장은 “전란 극복사의 시금석이 된 영암군 의병과 의병장 양달사 장군을 조명하는 일은 시급한 현안이 됐다”며 “이번 행사가 영암의 의로운 역사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